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뉘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자들에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기도합시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진로와 신학생의 자기 준비

허 순 길
(고려신학대학원장)

“신학은 교회의 딸이다(Theology is daughter of church)”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는 곧 신학은 교회의 사랑을 받고 교회 봉사를 위해 있다는 뜻이 되겠다. 신학과 교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신학교는 신학을 하는 곳이다. 신학교는 교회의 배경없이 건재할 수 없고, 교회는 신학교의 봉사없이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교회는 신학교를 설립, 운영, 감독 해야 하며 신학교는 건전한 말씀의 봉사자의 양성을 통하여 교회를 봉사해야 한다.

I. 고려신학교의 자취

1:1 신학교의 배태

고려신학교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종들에 의해 일제의 감옥에서 배태되었다. 일제 말 감옥에서 일본 제국의 패망이 다가옴을 직감한 한상동, 주남선 목사는 주님의 뜻으로 옥에서 풀려날 때를 생각하며 허물어진 한국 교회의 재건 방안을 구상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를 설립하여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참된 교역자를 양성하는 길이었다. 이 종들은 바른 신학교육이 교회 재건의 최선의 방법임을 확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난 날에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얼마나 파괴적이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침투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2 신학교의 설립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고 종들이 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교회와 신학계의 현실은 바로 폐허 그것이었다. 교회에는 회개를 통한 교회 개혁운동보다 지난 날 일제에 아부하거나 타협한 자들, 심지어는 일본의 태양신 앞에 경배한 배교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신학계는 개혁

주의 장로교 신학의 본산인 평양 신학교가 폐교된 후(1938), 1940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설립한 조선 신학교가 해방된 한국교회 남부총회의 직영 신학교로 인정을 받기 위해 터를 다지고 있었다. 당시 교회의 교권은 실상 지난 날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배교자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출옥 후 잠시 평양 산정현교회를 섬기다가 남하한 한상동 목사와 거창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던 주남선 목사는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감옥에서 가졌던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곧,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합의하고, 1946년 진해에서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만 2개월간 전 만주 동북 신학교 교수였던 젊은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 교수를 모시고 신학 강좌를 개최하고, 1946년 9월 20일에 박윤선 교수를 교장 서리로 모시고, 부산 금성중학교 교실을 빌려 개교하게 되었다.

이때 고려신학교의 출발은 교회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곧, 노회나 총회의 설립은 아니었다. 당시의 교회 정치적 상황은, 위에 언급한대로 교회의 진정한 재건을 위해 이 종들의 뜻을 받아 들일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회개와 한국교회의 재건을 부르짖는 이들을 독선자 혹은 신성파로 몰며 증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종들은 결코 독선자도 신성파도 아니었다. 옛 경건주의자들처럼 “교회안에 교회(church in church)”를 세우거나 하나의 완전한 자들의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스런 봉사자를 양성하여 한국교회에 내어보내므로 전 교회의 재건 곧, 개혁을 하자는 보편교회를 사랑하는 충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신학교의 설립이 최초로 교회로 말미암지는 않았지만 비상한 환경 가운데서 교회의 봉사를 위해 세워진 것이다.

1:3 위기의 극복

이 신학교가 설립된 후 43년 동안 내외로부터 온 시련이 많았고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개혁이라는 귀한 목적을 위해 이 학교를 설립케 하신 주님은 이 학교를 지켜 오셨다.

이 학교가 겪은 네 위기를 들 수 있다. 첫번째 위기는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1947년 10월에 취임한 박형룡 박사가 미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1948년 4월 전국교회를 배경하기를 바라고, 또한 연합 장로교회를 위시한 W.C.C. 가맹교단으로 부더의 외국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일하려는 뜻을 지니고 고려신학교를 이탈한 일이었다.

둘째번 위기는 설립초부터 몸담아 14년간 봉사해 오던 박윤선 박사가 교회

의 정치적 복합관계속에서 1960년 10월 고려신학교를 떠난 사건이었다. 세째번 위기는 1960년 승동측과 합동하므로 같은 해 12월 28일 신학교도 합동하게 되므로, 고려신학교가 폐교가 되고 총회 신학교의 분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1962년 10월 17일 고려신학교의 설립자였던 한상동 목사가 복교를 선언하므로 이 학교는 다시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네째번의 위기는 80년대에 이 신학교가 고신대학에 종속된 신학대학원이 되므로 교회의 목회자 양성 학교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잃게 되어 교회와의 관계의 소원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타도 타버리지 않는 그루터기처럼, 연약한 인간이 봉사하는 기관이기에, 몇번이나 불같은 시련을 겪었으나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므로 그 그루터기가 남게 되어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다.

1:4 교회의 신학교

고려신학교는 1946년 설립 이래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사설 신학교로서 유지 되어왔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교회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학교였다. 이 학교는 진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교회에 내어 보냈고, 이 학교를 나온 모든 종들이 교회재건을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의 길에 들어섰었다. 이에 진실한 종들을 맞이하는 교회들은 이 신학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형식상으로도 이 학교가 교회의 학교가 되어야만 했다. 드디어 주님은 이 학교가 형식면으로나 내용면으로 교회의 학교가 되도록 이끄시었다. 1963년 설립자 한상동 목사는 이 학교 전체를 총회에 헌납하게 되고, 1965년에 총회 유지 재단이 설립되어 이 학교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II. 고려신학대학원의 진로

고려신학교의 설립 이념이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참된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회에 파송하므로” 교회 재건에 이바지함에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연구와 파수 및 순교적 신앙을 가진 봉사자의 양성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었다. 고려신학교는 언제나 이 이념을 지키고 실현해 갈때 존재의 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2:1 신학교육의 목적

신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학도로 하여금 말씀의 봉사를 위한 사역자가 되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목사는 교회의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의 대언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므로 목사는 신자들의 사회생활과 윤리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고로 목사는 영적인 자질을 갖춘 말씀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신학교육은 영적 자질을 갖춘 말씀의 봉사자 양성에 가장 큰 목표를 둔다. 영력있는 말씀의 봉사자가 될때, 그는 청중의 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봉사자가 된다. 그런고로 신학교는 신학도가 성실한 말씀의 봉사를 위한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하는데 제일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 신학교는 말씀의 봉사를 위해 훈련받는 신학도에게 신학에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목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가 어느 정도의 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선한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없다. (엡 4:11) 그래서 신학교는 신학도에게 신학적인 훈련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학자 양성이 아니고, 신실한 말씀의 봉사자의 양성이다. 말씀의 봉사자중에서 특수한 학적 재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칼빈은 엡 4:11의 말씀을 따라 목사의외에 교사의 직분이 교회에 따라 항구 직분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직책을 교회의 치리나 권징에 관계하지 않고, 단지 성경을 해석하고, 이단과 사설에 대하여 성경적 교리를 변증하는 책임을 지며, 신학을 교육하는 자로 보았다. 그러나 칼빈 이후 개혁주의자들은 교사라는 독립된 직분이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고, 목사가 곧 교사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신학교수는 교회안의 독립적인 직분이 아니고 목사된 자 중에서 학문연구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를 교회가 임명하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고로 신학도는 말씀의 봉사자로서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신학교는 이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2:2 신학교의 의무

2:2:1 말씀의 봉사를 위한 신학도의 훈련

오늘날 신학교들에서 말씀의 봉사자 훈련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 가고 있다. 교회성장에 대한 기술의 발전과 습득, 급변하고 다문화 되어가는 사회속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가지 신자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 상담 등에 큰 관심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소위 실천 신학이 크게 강조되고,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한 목회 상담학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목회 상담학은 신학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이며, 영적이라기보다 세속적인 경향을 많이 띤다. 가족문제의 해결, 공포로

부터의 해방, 불안의 해소 등을 위해 그 사람의 배경을 엄밀히 조사하고, 상담하므로 해결의 길을 발견하려 한다. 인간이 가진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적관리를 위하여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씀의 효과적인 봉사속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다. 그러니 신학교의 의무는 무엇보다 미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2:2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도록 도움

신학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계시된 말씀, 성경이 신학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고 표준이다.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이나 일반 계시도 신학적 지식을 위한 원천이 될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무오한 계시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여러 상이한 시대의 여러 사람들, 우리와는 생활 습관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다. 나아가 계시된 진리는 단순한 것도 있으나, 매우 복잡성을 띤 것도 있다. 마치 한 계곡을 여러 다른 지점에서 내려다 볼때,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과도 같다.

신학교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학도들에게 바로 해석하도록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다.

2:2:3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 건전한 교리를 옹호함

신학교는 학적인 입장에서 이단 곧, 거짓 종교의 정체를 밝히고, 참 종교(신앙)를 변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거짓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Christian Science 등을 들 수 있다.

잘못된 교리(errors)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의미하는데, 이 잘못된 교리는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는 감리교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고, 침례교에서 유아세례를 부인하는 것 등에서 발견된다.

신학교는 이단과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건전한 개혁주의 교리를 밝히고, 변호하므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사명을 가진다.

2:3 신학교육에 대한 교회의 의무

종교개혁 이후 얼마동안 교회가 직접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지 않고, 일반

대학에 속해 있는 신학과 출신을 받아 목회자의 수요를 채웠다. 이 대학의 신학부가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의 봉사자를 배출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신학부에 침투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순수성이 흐려지게 되었을 때,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의 감독 아래 신학을 교육할 수 있는 교회의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이 결과 오늘날 거의 모든 개혁주의 교회(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교회가 직접 운영 감독하는 직영 신학교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직영 신학교를 갖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안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교회가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다. (마 28:19, 20, 행 1:8)이 사명은 모든 신자 개개인이 다 받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받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가 있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 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는 신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신학을 지원해서 목사가 되도록 유능한 젊은이를 격려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와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교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고려신학대학원도 실제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될 때, 더욱 책임있는 신학교육을 도모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 할 사명을 가진다. 이 사명은 신학교를 통한 건전한 신학교육으로 이룰 수 있다. 교회는 신학교를 직영할 뿐 아니라 신학교육을 감독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감독이 흐려질 때, 신학은 교회의 봉사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학교의 감독 기관인 이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A.Kuyper는 “역사는 전적으로 교회의 통제밖에 있는 신학교가 얼마나 쉽게 신앙고백의 입장에서 떠날 수 있는 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이는 곧, 교회의 통제가 없는 당시의 대학들의 신학의 좌경을 들어 말한 것이다.

물론 신학을 감독하는 교회도 진리에서 떠날 수 있으므로 교회의 절대적 무오한 권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812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 의해 설립되어 그 교회의 감독을 받아오면서 19세기말 20세기초까지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을 이루었던 Princeton 신학교가 교회 지도자들의 좌경과 함께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버리게 되었고, 1834년에 개혁을 부르짖고, 화란 캄펜에 세운 신학교도 H.Bavinck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을 통해, 유럽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을 이루었으나, 교회가 좌경화되고 감독이 소홀해지면서 개혁주의 노선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 교회와 신학교를 건전하게 불드는 것은 인간의 힘은 아니다. 그러

나 교회는 경성하여 받은 진리를 파수하고 전하도록 사명을 받고 있다. 교회는 주님의 축복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이 사명을 이행해 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회는 말씀을 보존할 뿐 아니라 후세대에 전해줄 사명을 가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3)했는데, 이 말은 디모데 뿐 아니라 교회에 준 말씀이다.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후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신학교를 세워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교육하므로 받은 진리를 전수하며, 다가오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 현실적이고 자기 위주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소유자는 언약이 신학을 알고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다.

III. 신학생의 자기 준비

3:1 신학생은 말씀의 봉사를 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신학자, 교수는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자질은 다 다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신학교 교수는 말씀의 사역자중에서 교회가 학문적인 자질이 있는 자를 택하는 것이 개혁주의 세계의 관례다. 개혁교회의 교수 후보의 요건을 보면 세가지를 드는데, 첫째, 인격적인 면(personal): 건전한 교리, 경건 생활, 덕, 가르칠 능력 등, 둘째로, 학적인 면(Academic): 넓은 인문학을 배경한 개혁주의 신학교육, 전문 영역의 연구 등, 셋째로, 목회적 면(ministerial): 목회 경험을 가진 정규 목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봉사를 목적하지 않는 신학연구는 하나의 허상이다. 말씀연구는 실천적 경향을 띠는 것이다.

3:2 효과적인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일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목사는 말씀의 증거자일 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3:3 자기를 언제나 시험할 것이다. (self-examination)

자기의 성격이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 합당한지를 살필 것이다.

자기의 성격을 점검하고,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혼자해야 되고, 자기보다 누가 앞서거나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때, 건디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인도자로 합당치 않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신학도는 자기의 경진생활(물질, 이성, 명예와 관계된)이 복음을 전할 자로서 부끄럼이 없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복음 증거는 입으로만 아니고, 행위로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입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설교했다.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놀라운 행동의 설교였다. 신학도는 자신이 행동으로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말씀의 봉사자의 길을 택한대 대한 재고를 해야 한다.

○ 차영배 교수의 비평에 대하여

고재수

*이 글은 고려신학보 16집(1988.11월 발간)에 차영배 교수가 고재수 교수의 "성령으로 세례"라는 소책자에 대해 비평한 글에 대한 답이다.